

네덜란드에서 만난 작가들 (3)

닉 렌서 Nick Renshaw

August 2013

문화관광부 지정 제15회 우수잡지 선정

1 최석진 미국리포터

닉 렌서 Nick Renshaw는 점토로 30cm에서 2m가 넘는 다양한 크기의 사람 형태를 만든다. 대개 이집트 청동 조각을 연상시키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 그의 인간상들은 감정을 나타내는 표정과 몸짓이 최소화된 매우 말려있는 모습이다. 얼굴 모습이 단순화된 채 거대한 손과 발을 가지고 바닥에 뿌리박은 듯 굳게 서있는 인물상들은 관객과의 소통을 차단하는 듯해 관객이 작품 앞에 서면 단절된 고립감을 느낀다. 그는 "나는 나의 작업을 통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모호함과 모순, 대립을 표현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한다.

"Earthing Candyman, Stoneware, 165cm h.
 Collection Museum Het Princeshof, 2001 Photo : Corne Bastiaansen"



렌서는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학업을 마쳤다. 영국 요크 컬리지 오브 아트 York College of Art와 맨체스터 폴리테크닉 Manchester Polytechnic에서 미술 기초 실기를 배웠다. 그가 자라난 도시 요크는 25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이 깊은 곳이다. 렌서는 "요크의 문화와 역사는 나의 작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한다. 그는 영국의 산업도시 맨체스터에서 미술 공부를 계속하고, 네덜란드의 게리트 리엠틀드 아카데미 Gerrit Rietveld Academy와 샌드버그 인스티튜트 Sandberg Institute에서 디자인 Free Design Department을 전공 했다. 또한 미국 프랫 인스티튜트 Pratt Institute에서 한 학기 동안 수학하기도 했다. 드로잉과 스케치 그리고 디자인을 공부했던 미술 배경이 도예와 결합되어 그를 시각적 예술 세계로 이끌었다. 그는 지난 20년 간 네덜란드에 정착해 살고 있는데, 다양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여러 도시에서의 교육 경험은 그를 둘러싼 환경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했다. "나의 작업에는 여러 곳의 문화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현대적 시각으로 녹아있다."

그에게 '점토'라는 재료는 그의 가족 역사의 한 부분이며 실체적 물질이다. 그의 아버지는 대장장이 일을 했다. 재료를 다루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점토를 자신과 쉽게 연결시켰다. "점토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가능성을 가진 직접적, 신체적, 그리고 개념적 재료이다." 또한 "영국에서 도자기는 전통적으로 풍부하고 깊은 역사가 있으며, 특히 예술과 공예는 현재까지도 서로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는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며 점토가 가진 가능성과 한계를 탐구하고자 했다."고 말한다. 그는 개인적 시각과 역사적 사건을 통해 본 사실들을 관습 있게 본다. 주로 일상에서의 사건들로부터, 주변 환경과 사람들,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작업에 대한 영감을 받는다.



'Earthing Candyman'은 2001년 유러피안 세라믹 워크센터(European Ceramics Workcenter, 이하 ECWC)에서 만든 것이다. 170cm의 크기에 유약으로 단순화된 윤곽만이 표현되어 있는 얼굴, 그리고 의복을 연상시키는 단순한 유색이 시선을 끈다. 표면의 부드러운 유색과는 대비되는 세련되지 않은 서투른 포즈의 단단한 자세는 움직임이 거의 없이 관객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듯하다. 1250°C에서 초벌하고 가스가마를 이용해 700°C와 1300°C 사이에서 2~5번 되풀이해서 번조했다.

'Myriad'는 50~60cm의 작은 인물상들이다. 마치 외계에서 온 우주인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감정이 없고, 수수께끼 같은 이미지를 가진 인물상들은 원서가 작업하기 전 스케치하는 과정으로 만든 것이다. 피에트 어거스틴(Piet Augustijn)은 "작은 사람 형상들은 모여 있는 보호병 같은 매우 조음하지만 존재감을 보여주는 형상들이다. 얼어붙은 고대의 그리스 인물상을 연상시키며 남자와 여자, 어린이가 같지도 않고, 늙거나 어리게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 1 'Myriad, Stoneware Porcelain, 65cm h., 2011
- 2 'Sting, Bronze, 200cm h., Collection Gemeentehuis Ouderkerk aan de Amstel, 2010
- 3 'Casement Head(Black), Stoneware, 110cm h., 2004



- 1 "Speciemant(Blue), Stoneware, 45cm h, Private Collection, 2001
- 2 "Kupfermickel(Green), Stoneware, 135cm h, 2006
- 3 "Kupfermickel(Blue Head), Stoneware, 135cm h, 2006
- 4 "Deep Blue Suspension, Stoneware, 63cm h, Private Collection, 2007 (Photo : Peter Lee)
- 5 "Native Earthling(Green), Stoneware, 90cm h, Collection VU Medisch Centrum, 2004



『Casement Head』는 세계 공통인 언어인 거대한 머리형태이다. 생략된 인간 몸체에 원통형 입체구조가 관통해 있는 형태 『Casement Head』에는 말로 쉽게 표현되지 않는 긴장이 있다. 그의 작품에 되풀이 되는 것인 직접 자세를 지닌 최소한의 인간 형태 표현으로 관객은 그 내면에 무슨 생각을 담고 있는지 어떤 단서를 제공받지 못한다. “나는 간단한 형태에서 어떤 의미를 불러 오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실외 설치 작품 『Sitting』은 2010년에 완성했다. 장난감 같은 구형 머리, 몸통, 다리로 단순화된 신체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와 포즈로 설치되었다.

렌서는 인간의 몸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빈 캔버스라고 설명한다. 그는 “인간 형상은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이것은 자연히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조건, 모든 문제들, 그리고 신체와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한다. 피에트 머그스틴은 “가장 기본형태의 인체형상은 어렸을 때의 기억을 환기시킨다. 또한 그들은 모호하며 불안한 감정을 불러 오기도 한다”라고 말한다. 속이 텅 빈 점토 인물상들은 작가의 직감과 경험, 인간의 조건에 대한 생각으로 차 있어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무게를 지니고 있는 듯하다. 그는 자신의 직감과 본능으로 유색을 결정 한다. 표면에는 단일한 유색으로, 또는 의복을 연상시키는 분할로 몇 개의 유색이 입혀져 있다. 형태와 균형이 있으며 동시에 엄격히 통제되어있는 듯한 유색의 선택은 깊은 청록색, 공업 생산품 같은 회색등 유기체 인 인간과 연관 시킬 수 없는 산업적 색채들이다. 그는 대부분 코일링으로 성형하며 부분적으로 몰드를 사용하기도 한다. 자신의 얼굴의 몰드를 떠서 기압 성형으로 제작한다.



1 Earthing(Blue), Stoneware, 125cm h., Collection A&N AMRO Bank, 2001 (Photo : Corne Bastiaansen)

“나는 작품을 만드는 동안 자발적으로, 직감적으로 만든다. 처음의 계획과는 다르게 머리와 몸을 서로 바꾸어서 붙기도 한다.”

그의 작업실은 암스테르담이 흐르는 운하 바로 옆에 있는 고층 건물에 있다. 일층에는 특이한 생활 공예품을 파는 까페가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내려면 넓은 복도가 있어 마치 아파트 같은 건물이다. 그곳에서 일년에 2~3개월 동안 매우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고 그 외 기간에는 다른 환경에서 레지던시로 작업한다. 2012년에는 중국에서 3~4개월간 작업했다. “중국에서 작업하는 동안 이전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대한 크기의 작업에 대한 많은 가능성을 보았다. 중국은 다른 곳의 영향으로부터 매우 열려있는 듯 보였다. 나는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에 관심이 많다. 이것은 나의 배경을 더욱 이해하게 해준다.”라고 말한다. 올해 봄에는 미국 미네소타주의 노던 클레이 센터(Northern Clay Center)에서 3개월간 작업하기도 했다.

현재 그는 현재 영국의 선더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Sunderland)에서 박사학위 과정 중이다. 특히 레지던시 과정의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사물에 대해 단언하거나 확신하지 말고 항상 질문을 하여 다른 면을 바라보도록 하라고 말한다. 세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변화하는 세계에서 새로운 것을 이해하며, 의문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작가 닉 헨스(Nick Hennessy)는 영국에서 태어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그레이 리엠틀드 아카데미(Grey Rietveld Academy)에서 학사(BA)와 샌드버그 인스티튜트(Sandberg Instituut)에서 석사(MA)를 받았다. 미국 노던 클레이 센터(Northern Clay Center)와 중국, 시간(Shi)의 중국유럽예술센터(Chinese European Art Center), 네덜란드 덴보쉬의 유리피안 워크센터 등지에서 레지던시를 했다. 그의 작품은 중국 무저우(無錫) 국제 도예박물관과 네덜란드의 아르메아 콘스트 왕립박물관(Museum Princessehof of Arnhem Kunst) 등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 영국의 선더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Sunderland)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다.

최석진은 이화여자대학교 도예과(2004)와 대학원(2006)에서 도예를 전공하고, 미국 크렐펠록 아카데미 오브 아트(Crelle)를 졸업했다. 2010년 버지니아 박물관 예술기금(Arts Foundation)을 수상했으며 한국과 캐나다, 미국에서 개인전 개최와 단체전 170여 회를 했다. 현재 미국 버지니아주의 제임스 매디슨 대학(James Madison University)의 예술디자인대학(School of Art, Design and Art History)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